

# 장소의 생성과 지역문학\*

송기섭(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 목 차 〉

- |            |             |
|------------|-------------|
| 1. 장소의 사건  | 4. 관계하기의 장소 |
| 2. 장소의 외재화 | 5. 장소애와 글쓰기 |
| 3. 장소의 주름  |             |

### 국문초록

장소는 사건이다. 이 명제는 지역문학이 지닌 소수자문학으로서의 특이성을 구현하는 근본 관념을 증명한다. 장소의 사건은 거주민들의 삶이 되며, 장소감을 조성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진실 찾기의 기억이 된다. 사건으로서의 장소는 실체로서의 장소를 지역인의 정신이자 나아가야 할 가치로서 장소를 표현하도록 구획한다. 한 장소는 표현의 대상이 되면서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두드러진 기호가 된다. 그것을 장소의 이미지이자 장소의 상징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지역문학은 이러한 문화적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하여, 장소의 생성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형성하는 장소 정체성을 적체하는 지역 공동체의 형식이 된다. 그때 장소는 거주이자 참여의 실체에서 가치를 담고 이념을 창조하는 비실체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본 연구는 지역문학이 장소의 사건이란 관점에서 장소의 표현을 탐구한다.

장소성과 지역문학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를 탐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유성과 신탄진이라는 장소의 표시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곳들은 대전의 지역문학에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장소이다. 그곳들은 글쓰기에 끊임없이 표시되면서, 그것이 지역문학임을 잘 표상한다. 이 표시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순한 지시 관계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기호로서 애매함을 내포한다. 그것은 이 표시가 단순히 장소의 재현이 아닌 그것의 표현일 때 가능하다. 장소로서의 그곳들은 단순히 재현된 장소가 아닌 표현된 장소임을 드러낸다. 이때 장소성이 생성된다. 장소는 표현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며, 나아가서 지역문학의 특이성을 창조한다. 장소는 표현되면서 은유의 구조로 계열화된다. 계열을 이루면서 물질적 현존을 이루던 유성과 신탄진은 비물질적 기호, 곧 정신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실체적 효과를 발현한다. 장소의 이러한 기표적 기호로서의 속성은 지역문학이 나갈 보편적 지평을 형성한다.

주제어 : 장소의 사건, 지역문학, 장소성, 주름, 장소의 생성, 비실체적 효과

## 1. 장소의 사건

지역문학의 경계를 구획하고, 그 영토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 장소이다. 대전문학 혹은 호서문학이라 명명하듯이, 장소는 지역문학이 표상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기입되는 이름이자 무한한 문학성을 지닌 의미로 확장될 사건이다. 고유한 이름으로 호칭되는 장소의 사건은 그곳 이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고유한 현실이자 그것을 발원으로 생성될 충만한 문학적 이미지이자 의미의 출처이다. 바디우는 그 장소야말로 ‘진리가 존재하는 외면’<sup>1)</sup>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소가 사건의 출현에

의존하는 까닭이며 그 사건은 예측불가능한 진리의 과정을 담은 잠재태인 까닭이다. 장소는 그렇게 지역문학의 근간인 지역 경계의 표상 체계를 이루며 그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란 정체성을 진리의 형식으로 조직하는 과정으로서의 사건을 배당한다. 장소의 사건은 크게 세 층위에서 분할되는데, 이는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근거이기도 하다. 풍경이나 행위의 장소로서의 외재성, 그것의 과잉으로서의 혹은 경험의 초과로서의 의미의 주름, 그리고 기억에 남겨진 문학적 관계하기가 그것이다. 물질 이미지를 현재화하는 운동-이미지, 잠재태적 상관항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미지, 그리고 타자성이나 상황의 윤리가 매개되는 관계하기가 여기에 겹쳐진다고 하겠다.

우리는 문학 작품이 작가가 자란 혹은 사는 장소가 많은 적든 글이 뿌리 내리고 있는 현실의 배경이 되어 준다는 것을 확신<sup>2)</sup>해 본다.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장소를 원한다. 그곳에 거처하길 원하고 그곳에 방문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그곳에서 안정감을 얻고 아름다움을 감각코자 한다. 충만한 장소가 안겨주는 안정감은 인간의 생물학적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을 위한 근본적 근거이다. 그곳이 진정한 장소이기 위해서는 그것의 표상적 지위가 요구된다. 표상한다는 것은 드러내 앞세우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려니와, 그러한 정신작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리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장소의 경험을 위한 주체는 실체로서의 장소를 가져야 하며, 무엇인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장소와 마주한다. 지역문학은 일차적으로 그 장소의 외면을 표현함으로써 성사된다. 렐프는 지리란 무엇보다도 의미로 가득 찬 세계를 심오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인간 실존의 기초 그 자체와 같은 것<sup>3)</sup>이라 규정한다. 그곳은 누군가 살아가는 장소이고 또한 축적된 사건들을 기억하는 장소이다. 이것들이 장소에의 정체성과 우리를 부여한다.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역사는 현존하는 경관과 더불어 이러한 장소화를 이끄는 구체적 특이성을 함의한다. 장소의 역사는 대개의 경우

1) 알랭 바디우, 장태순 역, 『비미학』, 이학사, 2016, 94면.

2) 아니 에르노, 신유진 역, 『진정한 장소』, 1984복스, 2019, 7면.

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2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실현된다. 주제를 소멸시키면서 장소가 생성하는 의미들은 문학이 만들어내는 허구성의 영역에 속할 것인데, 그것들은 장소의 주름이라 할 장소가 지닌 이차적 의미들이다.

장소의 재현은 지역문학이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고 고양시키는 근본 방법이자 의의이다. 여기서 재현은 그것의 기원이 될 모델을 전제하는 미페시스의 기본 원리에 속한다. 장소가 정지이며 개인들의 생물학적 삶이 영위되는 물질적 조건임을 전제하는 외현의 묘사는 지역문학과 장소감 혹은 장소애를 바라보는 기본 전제에 속한다. 장소는 그렇게 바라보는 자의 시선에 놓여 있다. 마치도 영화가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에 의해 포착되듯이 문학에서의 장소 또한 장소의 외현과 장소의 내재에 의해 구현된다. 이들 두고 이-푸 투안은 인간의 장소는 궁극으로 표현됨으로써 생생한 실체가 된다<sup>4)</sup>고 말한다. 장소의 현상학이라 할 장소의 외면은 중세에 있어 시적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이루던 방식이다. 근대소설의 서두를 장식하던 장소 묘사 또한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장소에 정체성과 아우라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지역문학의 독특함을 횡단하는 장소의 이미지이자 장소의 상징에 의해 규정된다. 지역문학에서의 장소는 단순히 물적 객관을 기록해둔 저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사유로 구성된 이미지이자 상징이다. 장소는 단순히 그 외현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재창조하면서 장소성을 생성한다. 장소는 그 자신의 혼성적이고 모호한 존재를 가지게 되는 바, 그 다양하게 위치지어진 사건들을 내부로부터 연결지으면서 그 장소를 가득 채우는 의미의 잠재성이 도래한다.<sup>5)</sup> 그렇게 장소는 끊임없는 장소화의 힘을 지닌 장소 고유의 능력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장소는 무한히 펼쳐지고 또한 접혀질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장소는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것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나아가서 지역문학의 특이성을 창발한다.

이러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나는 유성과 신탄진이라는 장

4)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287면.

5) 에드워드 S. 케이시, 박성관 역, 『장소의 운명』, 에코리브르, 2016, 112-114면 참조.

소의 표시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곳은 대전의 지역문학에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장소의 징표이다. 유성과 신탄진은 글쓰기에 끊임없이 표시되면서, 그것이 지역문학임을 아주 수월하게 경계짓는다. 이 표시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순한 지시 관계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기호로서 내포하는 애매함이나 모호함조차 지닌다. 그것은 이 표시가 단순히 장소의 재현이 아닌 그것의 표현일 때 가능함을 명시한다. 장소로서의 유성과 신탄진은 재현된 장소가 아닌 표현된 장소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계열을 이루면서 물질적 현존을 이루던 유성과 신탄진은 비물질적 기호, 곧 정신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물질적 기호가 된다. 장소의 표시로서의 유성이나 신탄진이란 장소는 물질성을 벗고 이미지들로 분자화된다. 그리하여 유성과 신탄진은 대전의 문학에서 크게 네 계열, 곧 경관, 사건, 관계, 그리고 비장소를 나타내는 기호들로 나뉘어진다. 장소의 경관은 보여짐의 풍경들로 표현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장소감을 조성하는 시민들의 삶이 된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지인과의 관계들은 진실 찾기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 비장소성의 출현은 개발에 의해 훼손되는 장소감에 대한 상실의 우려와 그것에의 복원 의지를 담는다. 장소 자체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전의 문학이란 영역에 귀속되는 것은 유성과 신탄진이란 장소의 표시에 근거한다. 유성과 신탄진은 인간의 표시가 갖는 독특한 구조를 대전의 지역문학에 도입한다. 그것은 장소 자체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덧없는 것이 될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장소의 영속성이 그 외관과 정신 가운데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으리란 안정된 믿음을 주는 것은 장소애와 그것의 진실 찾기를 강요하는 유성과 신탄진이란 실체로서의 장소이다.

우리는 그것을 정훈, 염인수, 박용래, 한성기, 임강빈, 이덕영, 홍희표의 글쓰기를 통해 확인한다.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문인들에게서 유성과 신탄진은 지역문학에서 흔히 예단되는 장소의 재현을 넘어선다. 그것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혹은 한 사적 개인의 경험의 양태에 따라 다른 물적 조건을 지닌 장소성을 얻게 된다. 그러한 장소성을 만드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특수한 구

조로 숙고하면서, 그 계열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증식해 나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지역문학이 지닌 생성의 잠재성을 열어보는 유효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대개의 지역문학론이 머물러 있는 자료주의에서 벗어나 그것을 미학적으로 탐구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내부에 담긴 진정한 진리 찾기의 충만함을 누리는 계기로 양양될 것이다. 유성과 신탄진은 대전의 지역문학이 생겨나는 장소 원천을 열어주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적 경험 조건에 기반한 재현론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문학이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형성해 나가는 장소 정체성의 두드러진 한 표본을 보여주면서도, 또한 그것을 고정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차이화하는 생성의 기호이다. 그리하여 대전의 지역문학은 자기 고유의 실재성을 문학의 공간에서 개별화하는 장소의 표시를 가져다 줄 우월한 위치를 점유한다. 본 연구는 지역문학이 이러한 장소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지역문학은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의식을 생산하고 확인하고, 또한 지속시킨다. 이때 지역문학이 긴밀하게 유대를 맺으며 교응하는 대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미래의 자원으로 간직한 장소이다. 본 연구는 지역문학이 그러한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한 장소는 표현의 대상이 되면서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두드러진 기호가 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성과 지역문학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 2. 장소의 외재화

지역문학에서 ‘지역’이란 장소를 의미<sup>6)</sup>한다. 지역문학의 생산자로서의 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들의 문학적 생성의 가장 긴요한 원천이자 확실성의 모델은 그 거주지로서의 장소이다. 장소가 시인들의 육체적 삶을 보장하며 정신적 행위를 가동하는 가시적인 물

6)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역, 『장소론』, 심산, 2011, 22면.

질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들의 문학에서 일차적으로 탐색하여야 할 형상들은 그것의 장소적 기원이다. 곧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들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장소를 대상화한다는 것이다. 거주로서의 장소는 그곳에 계속 살아가면서 일상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으로 그곳과 마주함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장소를 부여받는다든 것은 거기에 계속 존재함으로써 그곳이 보증하는 장소의 힘에 의해 부여받는다든 것, 그 실제성을 성취하고 그것을 유지해나감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장소는 그렇게 수동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힘에 의해 그 존재성을 유지한다. 지역문학에서 장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자체로 실제성을 갖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장소가 지닌 물질적 실제성은 그곳이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 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형상이다. 문학은 재현 욕구에 의해, 재현의 방법과 그 내용에 의해 성사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역문학은 장소를 재현함으로써 그러한 문학의 근본 동기를 실현한다. 그러한 재현의 형상은 문학적 재현이 비물질적 효과에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물질적 실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장소의 힘을 그것의 물질성에 귀속시키고 그 형상의 존재 자체와 질서에 우선 가치를 두고자 함은 지역문학에서 장소에 부여하는 일차적 효과이자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속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장소란 일정한 배열이며 위치의 측정이나 경계의 설정<sup>7)</sup>으로 그 물질성을 전경화한다. 이러한 표상 작용을 통해 장소는 보존하고 지지하고 부양해야 할, 그리하여 지지하고 끌어올리고 모으기를 도모할 실천의 대상이 된다.

개인이 가지는 감정이나 의식으로 가득한 주관적 장소는 그렇게 외양적 형상으로 재현된다.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실존 공간으로서의 이 생물학적이자 가치 중심적 존재 근거로서의 장소는 현상적 대상으로 마주쳐온다. 지역문학은 이러한 장소의 본질을 그 외관의 경계와 윤곽을 재현하면서 고유한 영역을 확보한다. 곧 장소가 무엇보다도 지리적 속성을 지닌 물리적인 시각적 형태<sup>8)</sup>를 지닌다는 것을 그것은 경관의 체현 방식으로 가져

7) 에드워드 S. 케이시, 앞의 책, 208면.

온다. 지역문학이 근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장소의 정체성은 영속성을 지닌 장소의 외관을 통해서, 실제하는 장소의 증거를 통하여 부동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지현영의 「아! 大田」은 그 장소의 외관이 불가항력적인 현재로 마주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無常은 가을라 儒城의 山野 / 黑石 白水 省川스물 굽이굽이 百里 / 鷄龍의 靈氣, 傳說에 불타는 黃紅 / 錦繡 牝鷄의 치마폭, 甲華 雨傘의 너울춤 / 아플사 鳳鳴의 飛翔 / 님의 뜻은 千歲의 神祕를 값있더냐 // 가는 나달이 또다시 슬기에 / 萬年橋 欄杆에 외로이 서 본다 / 九峯 大屯의 골악, 群鳥의 行列 / 오가는 물을 따라 雁陣을 그린다 // 아! 儒城 六城 / 公州 한발 버드내스들 / 湖中 千里의 안자위는 萬年城을 / 버리었느냐 // 어느 겨울 돌아들어 나는 보았다 / 白雪이 덮친 寶文의 淸淨<sup>9)</sup>

오직 지리적으로만 그려진 도상이 한편의 시를 이루게 됨을 「아! 大田」은 시선의 경험을 통하여 보여준다. 시를 이루는 어떤 것의 보임, 곧 본다는 것은 유성(儒城)이란 한 장소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과 지리적 정보이다. 지리적 형상들은 현실로 마주해오는, 그러면서도 불변이라 여기게 만드는 형상을 보이게끔 하는데 집중된다. 그것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여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그 친밀함의 강도를 불어넣는 다가섬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는 시지움에 흔히 따르는 ‘비밀스러움’으로 가득한 척도, 곧 “낯선 것 안에 불어넣는 본래적 형상들의 변종들”<sup>10)</sup>이 끼쳐들 수 없다. 지리적 윤곽에 따라 펼쳐지는 형상들은 상상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현실의 거주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있음을 실증한다. 시적 주체로서 지현영은 시지움의 거주함이 그 장소에 내포되는 비밀스런 의미의 확장이자 변종이 아니라 장소의 물질성에 포섭되어 있는 상태임을

8)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79면.

9) 지현영, 「아! 大田」, 『호서문학』 7집, 호서문화사, 1981, 108-109면.

10)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외 역,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논문과 강연』, 이학사, 2015, 262면.

드러낸다. 유성이란 장소의 체험은 이처럼 그 장소의 지리적 환경에 불합되는 것임을, 장소는 어떤 비틀림의 예외적 상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일의적 사건으로 불변성을 지니고 압도해 오고 있음을 드러낸다. 장소가 흔히 지니기 마련인 내적인 숨겨진 힘이 차단되는 압도하는 그 봉합의 힘이 이 시는 장소의 외관에 격한 감흥을 실어 전해온다.

시인이나 작가에게 자란 혹은 사는 장소가 많은 적든 글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의 배경이 되어 준다는 것을 지현영은 이 시편에서 보여준다. 글쓰기에 있어 장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터전으로서의, 구체적 물질로서의 장소를 가리킨다. 그곳은 인간의 삶이 영위되고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물질적 상황이자 인간을 둘러싼 주위 경관으로 체험에 의하여 문화를 형성하는 지리적 표지이다. 그곳은 홈페이지 공간으로 ‘둘러싸는 것, 확보하는 것, 유지하는 것, 모으는 것, 위치 짓는 것 등의 특성’<sup>11)</sup>을 지닌다. 이러한 시쓰기는 중세에는 가장 일반화된 글의 유형에 속했다. 송규렴의 「억미호(憶漢湖)」에 그려진 <雨歇山增翠 비 그치면 산 더욱 푸르렀고 / 風微水漾波 바람 솔솔 불면 물결 출렁였지>나 <山暗雲沈樹 구름이 숲을 덮어 산이 어두워지고 / 江明月涌波 달빛이 물결에 일렁여 강물 밝았지>를 보면, 중세의 사람들에게 장소는 글쓰기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려나 조선의 사족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토지 기반으로서의 지역과 지식 기반으로서의 글쓰기를 겸비해야만 했다. 중국 사(士)의 삶이 하나의 텍스트 시스템 내부에서 자신들의 재생산을 반영하는 형태<sup>12)</sup>를 취했듯이 그들에게도 그러한 글쓰기가 요구되었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억미호」에 충만해 있듯이 장소를 필요로 한다. ‘미호’란 장소는 대청담 수문 아래에 위치한 신탄진 지역의 한 지명이다. 송규렴은 이곳에 취백정(翠白亭)을 짓고 강학을 했으며, 이후 후학들은 그것을 기려 이곳에 미호서원을 건립한다. 강물이 휘감으면서 조성하는 이 마을의 풍경이 이 시에는 소박하고 진솔한 언어로 표현된다. 「억미호」와 같은 스승의 글들

11) 에드워드 S. 케이지, 앞의 책, 369면.

12) 크리스토퍼 코리너, 최정섭 역, 『텍스트의 제국』, 소명출판, 2005, 179면.

은 또한 그 텍스트의 전통 속에서 제자를 스승에 결합시켰다. 모든 글쓰기란 개인의 지식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사적 영역에 채도(載道)라는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숭고한 인문 행위였다. 개인적 저자의 목소리이자 자아 표현을 위한 형식으로서의 시조차 다른 글쓰기 양식과 마찬가지로의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운문이 “소규모 사회 집단들 내부에서 발생되어 전승되었”을 지라도 “시들에 이름 붙여진 개인들의 사적 체험은 공적 표현으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공유한 공동체적 가치 약화에 형식을 제공”<sup>13)</sup>하는 글쓰기 양식으로 집단적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글의 권위에 기대어 글의 장소는 지리적 위치나 경관으로서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외재화를 통해서 정신의 상징을 얻게 된다. 에르노가 글쓰기에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이라 말한 삶의 장소가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었다. 어떤 한 장소의 시인에게 그곳은 진정한 나만의 장소임에 틀림없으며, 지역문학은 “어쨌든 그곳에 모든 장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sup>14)</sup>하게 그 지리적 외관을 재현한다.

된서리 내린 날은 / 유성 온천 변두리 / 까마귀가 까맣게 모여들었다 // 열  
심히 먹이를 쫓고 있었다 / 어지럽힌 발자국 / 햇살이 와서 / 아지랑이처럼 피  
어올랐다 // 한적했던 허허벌판에 / 길이 생기고 / 지금은 도시로 변하고 있다 //  
삼강이 아니라도 / 까맣게 오너라<sup>15)</sup>

江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 江가에 가득한 밀밭 위로 바람이 넘치고 있  
었다. / 흰 모래톱에 던지는 돌 팔매. / 하늘 위의 몇 마리 새들과 / 無心한 물  
결이 / 빈 가슴에 들어 와 / 어둠을 허물고 있었다. / 키 큰 밀밭 사이로 / 지  
난 밤의 하찮은 不眠이 / 구름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 보였다.<sup>16)</sup>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존재론으로 이 시를 접근한다면 장소의 외관은

13)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최정섭 역,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미토, 2006, 308면.

14) 아니 에르노, 앞의 책, 10면.

15) 임강빈, 「까마귀」, 『이삭줍기』, 동학사, 2010, 74-75면.

16) 이덕영, 「신탄진」, 『한 줄기의 연기』, 형제출판사, 1976, 12-13면.

명료하게 잘 드러날 것이다. 장소란 분명 역사성에 의해 상징되고 문화의 의미를 덧씌우는 의미의 주름을 갖게 마련인데, 그러나 여기 「까마귀」나 「신탄진」에서도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한 장소의 이미지다. 그것은 장소가 한 순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현상을 포획한 것이라 말해야 한다. 거기 지금 있는 현존재를 만나는 탁월한 양식이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음을 장소의 재현으로서의 「까마귀」나 「신탄진」은 보여준다. 이는 「아! 대전아」나 「억미호」에서의 지리적 외형이나 경관으로서의 장소 이미지와 다를 바 없이 장소의 재현이자 최소한 그 연장이란 의미에서, 곧 실재에 대한 기원을 갖는 모방론의 관점에서 이를 취하게 된다. 장소를 재현한 실체로서의 형상은 문학의 텍스트로 옮겨진다. 장소와 언어의 지시 관계를 단순화하는 이 형상의 예고는 지역문학이 가지는 가장 고유한 특성이다. 이 장소를 붙잡아 놓음을 수단으로 지역문학은 장소적 지표를 얻게 된다.

재현된 장소가 아닌 표현된 장소를 설정해야 만이 문학에서의 장소성이 제대로 밝혀짐을 우리는 먼저 상정(想定)해야 한다. 지역문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유한 특이성으로 윤곽짓고, 그것을 생성의 역능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의 기호를 상징하고, 나아가서 장소성의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재현은 주지하듯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더 경직된 재현론자 혹은 역사주의자들이 응시하듯이 재현의 모델이 주어져야 하며, 그 실증성의 입증을 통하여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실감나게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을 통해서 정립코자 했던 창작술이며 미학인데, 아우어바흐는 ‘미메시스’의 계보학을 통하여 그것이 문학의 순수 사건에 의심의 여지없이 다가서는 방법임을 보증한다. 이러한 재현의 관점은 지역문학에서 그 재현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표상한다는 점에서 더욱 견고하게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성으로 인하여 독자적 문화주의 안으로 우뚝 설 근거이자 정당성이 되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역의 사소함이나 초라함에 비례하여, 더욱이 저항하기 어렵게 압도해오는 비장소성에 의하여 문학적 재현의 자리를 잃게 되거나 축소 당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불가피하게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학이, 더욱이 지역문

학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장소를, 그것이 지닌 외관과 주위 환경을 재현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 3. 장소의 주름

장소의 재현은 어떤 형상을 빌어 수행된다. 그것이 빌려옴의 형식을 지니는 것은 실재하는 원본 그대로의 장소 복원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소 또한 행동이나 다른 재현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재현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한다. 재현의 수단이나 방식이 갖는 근본적 한계에 의해 그것은 형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들뢰즈는 이 형상에 의존할 수 없는 과잉이 발생할 때 추상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형상과 추상 모두 재현을 추월하는 방식<sup>17)</sup>으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형상은 재현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이데거가 시인은 진리를 형상 안에 은닉한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은 “어떤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것”<sup>18)</sup>이다. 시적인 것들이 생기는 이 형상은 무엇보다도 보여지는 것이며, 더욱 간명하게는 표상 작용을 하는 실체이다. 그렇게 앞에 내세워진 형상은 그것이 시적인 것으로 현성하기 이전에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 재현의 형상물이란 점이다. 그것을 단순화하여 장소의 외관이란 지리적 척도에서 살펴보고, 지역문학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그 장소를 봉합한 문학의 장르임은 이제까지 살펴본 바다. 이렇게 장소가 재현의 근본이란 관점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전제되는 한에서 그 재현이 낳은 형상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문학이나 예술의 재현은 은폐의 공간이라 할 형상을 통해 그 재현된 세상과 예술 세계를 연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상한다. 이 형상이야말로 증거를 지우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문학의 사건이자 그것이 어떤 귀속성도 마다하고 끊

17) 질 들뢰즈, 하태환 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2008, 47면.

18)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62면.

임없이 차이를 낳으며 생산하는 진리를 보존한다.

차이를 잠재한 장소는 생생한 떨림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물질의 형식으로는 알 수 없는 비물질적 효과라 할 것이다. 장소가 지닌 물질성이나 그 경계의 윤곽을 지우면서 감각의 느낌이나 그것이 불가분하게 전해오는 의미를 만드는 것을 장소의 주름이라 부를 수 있다. 주름은 그것을 압축하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물질에서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판별되지 않을 어떤 접기나 비틀림에 의해 생산된다.<sup>19)</sup> 지리적 장소를 분쇄하고 범람하여 생겨나는 장소의 주름은 시적인 것을 통해 하나의 형상으로 구현된다. 이 주름은 장소가 가질 무한한 문화적 힘을 잠재하며, 차이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한 자기 회복이나 혁신을 가능케 하며, 또한 그 펼침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을 솟구치게 한다. 장소의 무한성을 지시하는 장소의 주름은 지역문학이 소수자 문학으로서 자신을 고유화하고 특권화할 자원이자 의미이고 가치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인들은 이미 이러한 시인들의 거주함을 실현하고 있었던 셈인데, 대전문학의 지평에서 한성기나 홍희표는 그 우위의 기능을 일찍이 수행한 경우라 할 것이다.

每日같이 독길을 걸었다 / 벌써 4년째 / 독길을 걸으면서 / 나는 世上을 생각했다 /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 서서히 도는 / 독길 // 먼 길 / 내게는 먼 頤마루를 넘어서 / 영동 예산 조치원 유성으로 / 10년을 걸러서 / 돌아온 / 길이 있다 // 每日같이 독길을 걸으면서 / 나는 10년을 생각했다 / 바쁘게 돌아가는 / 세상과 / 서서히 도는 독길<sup>20)</sup>

시적 형상으로 제시된 ‘독길’은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거처나 감각으로서의 장소가 아닌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 곧 ‘비물질적 장소’<sup>21)</sup>인 글쓰기의 공간이다. 그곳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곳으

19) 미래유 뷔뎡, 안구·조현진 역, 『사하라』, 산해, 2006, 140면.

20) 한성기, 「독길 VI」, 『실향』, 현대문학사, 1972, 44-45면.

21) 아니 에르노, 앞의 책, 71면.

로 때때로 가장 ‘끔찍한 고통의 장소’이지만 또한 ‘자유의 장소’<sup>22)</sup>이기도 하다. 에르노는 그곳을 ‘진정한 장소’라 부른다. 어느 곳이라 지칭할 수 없는 비물질적 장소, 그곳을 그녀는 진정한 장소라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곳은 과거와 현실이란 경험을 통과하고 있으며, 사회 세계에 침수되어 있다. 글쓰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장소 인식은 도피의 방식으로 물질의 장소를 비물질의 장소로 만든다. 어쨌든 그녀는 그곳에 그 모든 장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성기의 ‘독길’ 시편들은 에르노의 장소 체험과 너무도 흡사하게 그의 장소에서의 생명이 펼쳐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것은 장소가 주는 모든 감각들이자 인간 삶이라 통칭할 수 있다. 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 자신의 존재를 마주던진다. 그러한 행위는 더 이상 장소의 절대성에 자신을 내던지는 황홀한 끌림이나 자기 망각이 아니라, 곧 장소가 주는 그 표상적 위압에 휩쓸려드는 장소에의 경탄이나 상징에의 동일화가 아니라 자신을 생생하게 고유화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자세이다. 한성기는 그러한 존재론적 물음을 던지면서 ‘독길’을 걷고 있다. 그곳은 세상과 격리된 ‘나’만의 고독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과 연결된 그 고독의 통로이기도 하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동떨어진 자신의 삶이란 외형적으로야 질병의 고통이고 물질적 간고함이지만 진정 그것의 속내를 보자면 은폐되어 있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그토록 오래 동안 반복하여 걷고 있는 유성의 ‘독길’만이, 그 ‘산책자의 사건’<sup>23)</sup>만이 존재의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다. 한성기의 ‘독길’은 그렇게 장소의 주름이 된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장소는 문학의 틀 안에 여전히 핵심 요소를 이루게 되는데, 블랑쇼에게서 확인하듯 문학의 공간이란 비물질성의 생성으로 여겨지곤 한다. 구체하는 형상으로서의 장소는 이제 잠재태이거나 가상의 사건으로 인식되며 재현의 레퍼런스로서의 역할을 벗어버리고 추상이자 관념의 비물질적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물론 그것은 텍스트의 초월성을 느끼이

22) 위의 책, 104면.

23) 이하은, 「존재의 부름과 시적인 응답- 한성기론」, 『어문논총』 37호, 전남대 한국어 문학연구소, 2020, 108면.

려는 중세 글쓰기의 권위에 의한 장소 상징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어떤 장소를 신성하게 외재화하면서 유일한 성소로 만들려는 인간의 장소 종속과는 다른 지극히 사적 개인의 장소 해방과 관련된다. 진정한 장소에 이르려는 에르노의 ‘나만의 장소’가 그런 장소화에 해당한다. 한성기에게 유성의 ‘독길’은 내면의 진실을 담고 있는 사적 장소이다. 크기와 형태를 가지는 어떤 지리적 위치로서의 이 장소는 다른 “길이 넓이 깊이를 가진 것으로 연장”<sup>24)</sup>되는데, 이때 장소의 외형은 상상력을 불러내며 이미지들로 전이되면서 장소의 사건이 된다. 실존이자 용적으로서의 장소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연장되는 ‘잠종적 존재자’로 운동하는 이 장소이론은 어떤 것도 영속적인 고정된 장소 따위를 갖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문지리적 장소에 유달리 애착을 보인 이-푸 투안은 이러한 논법에서 아예 장소와 공간을 분리시킨다. 곧 그는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임을, 생물학적 장소에 가치 부여함에 따라 구성되는 관념의 처소<sup>25)</sup>임을 규정짓는다. 삶을 형성했던 경험의 장소를 추상화하는 투안의 장소는 세계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로컬리티의 감각 자료를 훨씬 넘어서는 정신력에 의존하면서 공간이 된다. 르페브르는 더 나아가서 공간을 “의식의 선형성, 내적이고 관념적이며 초월적이어서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없는 의식의 구조”<sup>26)</sup>에 밀착시킨다. 그렇게 근대 이후의 문학 텍스트에서 장소는 묘사되고 상상되고 사유되면서 연장되어 그 무엇인가에 전유된 공간으로 탐색된다.

신탄진장엘 아내랑 같이 갈거나 / 봄나물 앞에 쭈구리고 앉은 / 일흔 넘은  
할머니의 한 마디 / “위디 사람이 애초에 높낮이가 있남?” / 인형가게 옆에 쭈  
구리고 앉은 / 일흔 넘은 할아버지의 한 마디 / “위찌 막걸리나 한사발 때려  
봐?” / 세상이 너무 재미 없을 때 / 아니 부아 달랠 수 없을 땐 / 신탄진장엘  
가서 날곳이 봄비로 / 장국밥에 휘휘 맴을 풀고<sup>27)</sup>

24) 에드워드 케이지, 앞의 책, 309면.

25) 이-푸 투안, 앞의 책, 63면.

26)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40면.

27) 홍희표, 「신탄진 장남」, 『이스랭이 버드내에서 춤추며』, 호서문화사, 1991, 81면.

장소가 풍정이 되고 그곳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정미 넘치는 터전이 되고 있음을 홍희표의 「신탄진」은 기록한다. ‘한밭의 역사’이며 ‘우리들 피땀의 흔적이며 증언’을 시의 가락에 담아 남겨두고자 한 자칭 ‘한밭 풍물시’ 중의 한 편이 「신탄진」이다. 이덕영의 「신탄진」이 재현한 신탄진의 외재화와는 다르게 홍희표의 「신탄진 장날」은 지리적 장소의 내면이라 할 풍정을 그린다. 장소를 재현하는 다른 방식들은 물론 장소에 대한 다른 감각과 의미를 낳는다. 홍희표는 장소의 풍속을 기록한다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자신의 리듬에 담아내고 있으나 장소의 이미지를 확장한다는 면에서 그것은 장소의 주름을 생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홍희표의 장소의 형상은 장소의 주름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기의 「둑길」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것이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홍희표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그 풍정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그 내부에 담긴 장소의 의미를 추적한다. 이 장소의 표현은 대전을 거주이자 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지역문인들의 살아감의 방식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장소의 주름을 만든다. 주름은 외재화가 지닌 필침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상상에 의해서 무한하게 드러날 감춤을 겸비한다. 그 감춤의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초조한 혹은 감미로운 지역 문인들의 역사적이자 개인적인 내력이 담겨 있다.

장소로서의 유성과 신탄진은 재현된 장소가 아닌 표현된 장소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재현은 기원이 될 모델을 전제하는 미메시스의 기본 원리에 속한다. 장소는 단순히 그 외현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재창조하면서 장소성을 생성한다. 그런 점에서 장소는 무한히 펼쳐지고 또한 접혀질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 장소는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것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나아가서 지역문학의 특이성을 창발한다. 장소는 표현되면서 은유의 구조로 계열화된다. 계열을 이루면서 물질적 현존을 이루던 유성과 신탄진은 비물질적 기호, 곧 정신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물질적 기호가 된다. 장소의 표시로서의 유성이나 신탄진이란 장소는 물질성을 벗고 이미지들로 분자화된다. 그리하여 유성과 신탄진은 대전의 문학에서 크게 네 계열, 곧 경관, 사건, 관계, 그리고 비장소를 나타내는 기호들로 나뉘어진다. 장소의 경관은 보

여집의 풍경들로 표현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장소감을 조성하는 시민들의 삶이 된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지인과의 관계들은 진실 찾기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 비장소성의 출현은 개발에 의해 훼손되는 장소감에 대한 상실의 우려와 그것에의 복원 의지를 담는다. 장소 자체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전의 문학에 귀속되는 것은 유성과 신탄진은 장소의 표시에 근거한다. 유성과 신탄진은 인간의 표시가 갖는 독특한 구조를 대전의 지역문학에 도입한다. 그것은 장소 자체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덧없는 것이 될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장소의 영속성이 그 외관과 정신 가운데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으리란 안정된 믿음을 주는 것은 장소애와 그것의 진실 찾기를 강요하는 유성과 신탄진이란 장소이다.

#### 4. 관계하기의 장소

장소를 사건의 공간이나 그에 따른 감정의 배경으로 단순하게 본다면 재현이니 표현이니 하는 문제를 표명화하여 다룬다는 것이 공소해 보인다. 사건의 의미를 격렬하게 유발하거나 그에서 비롯된 성격의 외딴에 빠져들다 보면, 그것들이 발생한 장소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무관심의 상태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장소는 익숙한 형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나 그 가치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장소는 문학뿐만 아니라 온갖 문화 형식들에서 그 의미와 감정의 증폭이 예정된, 소위 기획된 창작물이나 미디어 장치 안에 이미 포섭되어 있었다. 실제 문학작품들은 사람과 장소를 긴밀히 연결하고, 자아와 주변세계 역시 조화롭게 연결한다. 문학은 장소가 인간 관계를 펼쳐나가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구조임을 일깨운다. 장소는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문학의 공간 도처에 존재하면서 ‘다양하게 위치지어진 존재자나 사건을 내부로부터 연결 짓는 힘’을 발현한다. 장소는 문학에서 장소화되는 그 표현의 힘에 의해서

장소감, 또는 장소애로 거듭 태어난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김만선씨와 더불어 몇 사람이 신탄진 앞 금강으로 천렵을 갔을 때였다. 그 좌석에서 김만선씨 처음으로 그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울 문학가동맹이 며칠 전 새벽에 소탕전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당한 것인데 나는 마침 번소에 앉아 있다가 무사히 빠져 나왔지만 함께 있던 회남, 남천 등 십여 명이 체포되었어요.” 나는 이때 김만선씨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일상생활의 안정을 잃고 있었다. 왜냐하면 김만선씨는 어디고간에 옮겨 갈 처지도 아니었고 또 언제까지나 경찰에서 그를 가만둘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때 우리 집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는데 마을마다 스파이기가 있다는 판국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를 보고 나가달라고 하기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외에 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부수적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대전의 문인들 사이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인 것이다. 가령 내가 대전의 문학계에서 간판격인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럴 경우 만일 김만선씨가 바로 우리 집에서 잡혀가게 된다면 나는 그 옆라국과도 같은 곳을 빠져나갈 도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나는 은연중 풀려야 풀 수 없는 궁지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금강으로 천렵을 간 그날 병성이는 두 되들이 큰 병의 소주를 들고 갔다. 그러나 바위 위에 올려놓은 그 병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밑으로 떨어져 병의 술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제기랄, 거기서 떨어질 게 뭐람.” 그중 제일 애석하게 여기는 이는 용래였다. 용래의 말에 병성이가 허겁이 웃고 나서 말했다. “이 사람아, 이만치 남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하나도 안 남았더라면 울고 말 사람이군.” 김만선씨도 그날은 생기가 돌았다. 입술은 타고 눈빛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이 없던 그가 그날은 꽤 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궁금하게 생각되는 문학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sup>28)</sup>

城이를 데불고 신탄진 강가를 거닙니다. 보리밭은 어느덧 무릎 위까지 패여

28) 염인수, 『깊은 강은 흐른다』, 심지, 1989, 40-41면.

바람에 무겁게 슬리고 있습니다. 목욕철이 아니라서 물빛은 푸르고 나비 한 마리 기습을 따라 나풀나풀, 대안의 岩山에는 傳馬船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江上의 초점처럼. 성이와 함께 발을 빠져가며 주위온 검은 돌맹이를 바라보며 형을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보내 주신 회소식에 담뱃 젓어, 이제 예쁘고도 탄탄한 동우리를 마련하셨다니, 좋은 시만을 부화하십시오. 76년 5월 11일<sup>29)</sup>

인용된 두 글이 모두 박용래와 관련되어 있다. 앞쪽은 염인수가 기억하는 박용래이고, 뒤쪽은 홍희표가 받은 박용래의 편지이다. 전북 진안 출신의 염인수는 동경농대를 졸업하고 대전농업시험장에 근무하면서 대전 연고를 갖는다. 그는 1946년 안회남의 천거로 『민성』에 「감자」, 『신천지』에 「작은 선풍」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소설가이다. 구십년대 해금과 더불어 집필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는 한국전쟁 당시 문학가동맹 대전지부의 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용래와 함께 한 문학적 여정을, 다른 일련의 사건들과 더불어 증언 형식의 글쓰기를 통하여 회고한다.<sup>30)</sup> 인용된 부분에는, 문학가동맹의 검거령을 피해 대전으로 잠입한 김만선이 염인수의 집에 은거하던 중 대전의 진보적 문인들과 신탄진으로 야유회를 다녀온 일을 적고 있다. 그후 김만선은 월북하였으며, 민병성은 월북하다가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박용래는 전향하여 서정시인이 되었으며, 염인수 자신은 투옥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해금이 되면서 작품활동을 재개한다. 그렇게 운명의 인물들이 죽음을 넘나드는 긴박한 역사의 시대를 살아간 순간에 신탄진 나들이를 다녀온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져 있다. 뒤쪽에 인용된 글은 박용래가 자신의 늦둥이 노성이와 신탄진 강가 보리밭을 거닐은 사정을 홍희표에게 편지로 전하는 글이다. 이십년쯤의 세월이 흘러서 지천명에 얻은 늦둥이 아들과 그 장소를 서성이는 박용래의 심경은 이 두 글의 연접이고 병치를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장소는 의미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그렇게 맥락을 필요로 한다.

29) 박용래, 「편지」, 홍희표 편저, 『눈물점 박용래』, 문학아카데미사, 1991, 81면.

30) 염인수,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미리내, 1995, 75면.

또한 장소는 표현됨으로써 생생한 실재가 된다. 이덕영과 홍희표의 시는 표현을 통하여 신탄진이란 장소의 존재와 장소감을 여실히 표현한다. 이곳은 문인들에게 ‘천렵’ 이상의 역사적 깊이를 간직한 장소이다. 그들은 이곳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가치를 입힌다. 그리하여 신탄진은 문인들에게 의미 가득한 구체적 장소가 된다. 박용래에게 그 장소를 거닐는다는 것이 왜 그리 사무치게 다가오는가는 현존의 감각을 찢러오는 과거의 체험된 기억이 활성화되는 까닭이다. 장소의 구체성 전체가 공간의 추상성으로 치환<sup>31)</sup>되는, 그리하여 자족적인 문학의 공간으로 위치하면서 그곳은 진정한 장소가 된다. 장소가 지닌 이 무한한 힘을 박용래의 후배 문인들은 ‘신탄진’이란 장소 표상을 통하여 다시 불러온다. 물론 이덕영과 홍희표에게 그 장소는 박용래와 동일 의미로 재귀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으로 순환된다. 장소의 어떤 의미도 결코 본질적인 고유명사와 결부되지는 않는다. 모든 개인들에게 고유명사로서의 장소는 무한히 반복되는 결여이고 그 빈틈을 채우는 생성이다. 그렇게 고유명사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채우려는 그 ‘순수한 상태의 기표<sup>32)</sup>’이다. 그것은 역사적 기억을 덧대는 집단적 축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대 이후 문인들에게는 오히려 사적 개인의 결여를 채우는 지극히 한시적이고 우발적인 장소 표상이 되곤 한다. 그 순수한 상태의 장소 기표를 에르노는 자신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장소라 부르곤 한다. 다음에 보게 될 리듬의 언어들에서도 장소와 그곳의 인물들이 관계의 형상으로 살아 나온다.

술 먹은 박용래가 / 대전 유성은천 냇둑 / 술먹은 고은에게 물었다 / 은이  
자네는 저 냇물이 다 술이기 바라지? 공연스레 호방하지? / 나는 안 그러 / 나  
는 저 냇물이 그냥 냇물이기를 바라고 / 술이 그냥 술이기를 바라네 // 고은이  
킬킬 웃어대며 / 냇물에 돌 한 개를 던졌다 / 물은 말 없고 / 그대신 냇둑의  
새가 / 화를 내며 날아갔다 / 박용래가 울었다. 안주 없이 먹은 술을 토했다 /

31) 에드워드 케이지, 앞의 책, 280면.

32) 러셀 그리그, 「고유명사, 그 순수한 기표」, 슬라보예 지젝 외, 강수영 역, 『나의 타자』 인간사랑, 2018, 143면.

괜히 새를 쫓았다고 화를 냈다 / 은이는 나뻘 / 은이는 나뻘 // 박용래가 울었다  
다 고은은 앞서가며 울지 않았다<sup>33)</sup>

고은이 시적인 것으로 기억하는 「어느 날 박용래」의 장소는 유성을 흐르는 갑천의 뚝방이다. 여기에는 장소의 아우라가 있기보다 관계의 아우라가 퍼져온다. 그런데 그것은 이윽고 장소의 그것이 되어 살아나온다. 장소는 사람에게 봉합되고 또한 사람은 장소에 봉합된다. 그것은 장소의 사건을 구체화하며 장소의 주름을 만든다. 이 짧막한 시한편에 박용래의 캐릭터, 그리고 고은의 캐릭터가 다 묻어난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며, 또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하여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적인 것’을 만들었다. 시적인 것이 시인들의 인생이자 그것을 역사로 만들 시인의 사건을 표상하고, 나아가서 은닉한다. “나는 저 냇물이 그냥 냇물이기를 바라고 / 술이 그냥 술이기를 바라네”나 “박용래가 울었다. 안주 없이 먹은 술을 토했다 / 괜히 새를 쫓았다고 화를 냈다”는 박용래를 재현한다. 재현의 형상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서술도 배제된 이 재현의 형상에 박용래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것을 무덤하게 형상하는 고은의 이 절제되고 희화된 지성에 박용래의 내면이 포착된다. 그 장소에서의 관계 상황은 사건으로서의 증거를 버리고 ‘어느 날 박용래’라는 고은의 형상으로만 전해진다. 그렇게 장소는 관계를 통해서 그것의 주름을 만든다.

## 5. 장소애와 글쓰기

지역문학은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의식을 생산하고 확인하고, 또한 지속시킨다. 이때 지역문학이 긴밀하게 유대를 맺으며 교응하는 대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미래의 자원으로 간직한 장소이다. 한 장소는 표현의 대

33) 고은, 「어느 날 박용래」, 『만인보』, 창작과비평사, 2010, 424면.

상이 되면서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두드러진 기호가 된다. 장소성과 지역문학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나는 유성과 신탄진이라는 장소의 표시를 추적하여 왔다. 유성과 신탄진은 대전의 지역문학에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장소의 징표이다. 유성과 신탄진은 글쓰기에 끊임없이 표시되면서, 그것이 지역문학임을 아주 수월하게 경계짓는다. 이 표시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순한 지시 관계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기호로서 내포하는 애매함이나 모호함조차 지닌다. 그것은 이 표시가 단순히 장소의 재현이 아닌 그것의 표현일 때 가능함을 명시한다. 우리는 그것을 염인수, 고은, 박용래, 한성기, 임강빈, 이덕영, 홍희표의 글쓰기를 통해 확인한다.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문인들에게서 유성과 신탄진은 지역문학에서 흔히 예단되는 장소의 재현을 넘어선다. 그것은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혹은 한 사적 개인의 경험의 양태에 따라 다른 물적 조건을 지닌 장소성을 얻게 된다. 그러한 장소성을 만드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특수한 구조로 숙고하면서, 그 계열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증식해 나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지역문학이 지닌 생성의 잠재성을 열어보는 유효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대개의 지역문학론이 머물러 있는 자료주의에서 벗어나 그것을 미학적으로 탐구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내부에 담긴 진정한 진리 찾기의 충만함을 누리는 계기로 양양될 것이다. 유성과 신탄진은 대전의 지역문학이 생겨나는 장소 원천을 열어주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적 경험 조건에 기반한 재현론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문학이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형성해 나가는 장소 정체성의 두드러진 한 표본을 보여주면서도, 또한 그것을 고정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차이화하는 생성의 기호이다. 그리하여 대전의 지역문학은 자기 고유의 실재성을 문학의 공간에서 개별화하는 장소의 표시를 가져다 줄 우월한 위치를 점유한다.

무엇보다도 지역문학은 그곳에 거주하여 삶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의 표출이자 서로 관계 맺음의 토대가 될 장소에 기반하여 창조된다. 유성과 신탄진이란 장소는 외관의 충실한 묘사를 위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는 물질적 모델이 아님을 문학적 형상을 통해 드러낸다. 그것은 최소한 네 가지

곧 경관, 사건, 관계, 그리고 비장소를 나타내는 기호로 작동한다. 장소의 경관은 보여짐의 풍경들로 표현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장소감을 조성하는 시민들의 삶이 된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지인과의 관계들은 진실 찾기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 비장소성의 출현은 개발에 의해 훼손되는 장소감에 대한 상실의 우려와 그것에의 복원 의지를 담는다. 장소 자체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전의 문학이란 영역에 귀속되는 것은 장소의 표시에 근거한다. 유성과 신탄진은 인간의 표시가 갖는 독특한 구조를 대전의 지역문학에 도입한다. 그것은 장소 자체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덧없는 것이 될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장소의 영속성이 그 외관과 정신 가운데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많은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으리란 안정된 믿음을 주는 것은 장소애와 그것의 진실 찾기를 강요하는 장소의 기호이다.

지역문학에서 장소가 함의하는 표현의 문제를 탐구함이 우리의 과제이다. 표현이 지닌 펼침과 집힘은 지역문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실체적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그 동일한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장소의 이미지들을 무한히 제공한다. 우리는 대전의 지역문학을 접하고자 할 때, 그러한 표현의 가장 두드러진 기호로 표시되는 유성과 신탄진의 장소 이미지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각각의 의미를 추출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지닌 표현의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 유성과 신탄진은 대전역으로 집결되는 대전의 중심부에 탈주의 힘으로 작용하는 주변부이자 부도심이다. 대전이란 도시에서 그 중심의 외연을, 도시의 확장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곳을 떠올린다. 그러러니 대전의 경험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보존하든 그것을 소환하여 새로운 현재의 시간을 만들고자 하든 표현의 매개로 유성과 신탄진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물론 우리는 문학의 표현 영역에 한정하여 그 유성과 신탄진의 표현된 형상들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지닌 의미의 논리와 여기에 필히 수반되는 감정들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고은, 「어느 날 박용래」, 『만인보』, 창작과비평사, 2010.
- 박용래, 「편지」, 홍희표 편저, 『눈물집 박용래』, 문학아카데미사, 1991.
- 염인수, 『깊은 강은 흐른다』, 심지, 1989.
- 염인수,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미리내, 1995.
- 임강빈, 「까마귀」, 『이삭줍기』, 동학사, 2010.
- 이덕영, 「신탄진」, 『한 줄기의 연기』, 형제출판사, 1976.
- 지현영, 「아! 大田」, 『호서문학』 7집, 호서문학사, 1981.
- 한성기, 「독길 VI」, 『실향』, 현대문학사, 1972.
- 홍희표, 「신탄진 장날」, 『이스라엘이 버드내에서 춤추며』, 호서문화사, 1991.
- 홍희표, 『까까중이 베짖이 되어』, 대교, 1993.

### 2. 논저

- 김현정 · 박연 편, 『시인 박용래』, 소명출판, 2015.
- 김화선, 「대전이라는 로컬이 문학 세계에 작용하는 힘」, 『비평문학』 77호, 한국비평문학회, 67-91면.
- 박은선, 「박용래와 한성기 시에 나타난 로컬리티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1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 35-67면.
- 송기섭, 『생성의 지역문학』,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이하은, 「존재의 부름과 시적인 응답- 한성기론」, 『어문논총』 37호,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20, 107-132면.
-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 · 윤상현 역, 『장소론』, 심산, 2011.
- 마르틴 하이데거,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기상 외 역, 『강연과 논평』, 이학사, 2005.
-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최정섭 역,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미도, 2006.
- 미레유 뷔텡, 안구 · 조현진 역, 『사하라』, 산해, 2006.

슬라보예 지젝 외, 강수영 역, 『나의 타자』 인간사랑, 2018.  
아니 에르노, 신유진 역, 『진정한 장소』, 1984박스, 2019.  
알랭 바디우, 장태순 역, 『비미학』, 이학사, 2016.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에드워드 S. 케이시, 박성관 역, 『장소의 운명』, 에코리브르, 2016.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질 들뢰즈, 하태환 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2008.  
크리스토퍼 코리너, 최정섭 역, 『텍스트의 제국』, 소명출판, 2005.

【Abstract】

## Place Creation and Local Literature

Song, Ki-seob

Local literature identifies, produces, and sustains the emotions and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Place is deeply involved in these action. This study explores how local literature expresses such places. Place becomes the object of expression and becomes the most prominent sign of the identity of local literature. Place and local literature are so closely linked. To explore this topic in detail, I would like to trace the sign of the place of Yuseong and Sintanjin.

Yuseong and Sintanjin are the most prominent places in Daejeon's local literature. They are constantly signed in writing, demonstrating that they are local literature. This sign does not only have a simple descriptive relationship to place, but also implies ambiguity as a literary symbol. It is possible when this sign is not just a reproduction of a place but its expression. Yuseong and Sintanjin as a place clearly show that it is an expressed place, not a reproduced place. At this time, placeness is generated. In that sense, the place belongs to the realm of expression to be unfolded infinitely and also folded.

Place is expressed and constitutes local identity, further creating the specificity of local literature. Place is expressed and serialized into a metaphorical structure. Yuseong and Sintanjin, which formed a material presence as a series, become a nonmaterial sign, a nonmaterial sign that creates a mental meaning. Yuseong or Sintanjin, as an indication of a place, takes off materiality and be molecularized into images. Thus, Yuseong and Sintanjin are largely divided in the literature of Daejeon

into symbols representing four categories: landscapes, events, relationships, and non-places.

Events in places create a sense of place and become citizens' lives. Relationships with people there are also memories of finding truth. The emergence of non-placeness implies the loss of sense of place damaged by development and the willingness to restore it. Local literature restores place in the crisis of non-placeness. The literary place of Yuseong and Sintanjin is an indication of such possibility. They introduce the unique structure of human marking into the local literature of Daejeon.

**Keyword** : local literature, the place, expression, literature of Daejeon, event of place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4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